

광주시건설협회장 선거 '3파전'...특정후보 자격 논란

당선무효형 선고 김명기 전 회장부터

조성래·황인일 전·현 집행부 후보 등록

오늘부터 선거활동 23일 13대 회장 선출

광주시회 "김 전 회장 결격사유 없어"

김명기 전 회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다시 수장을 뽑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가 전·현 집행부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명기 전 회장이 후보로 등록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 국제건설(주) 김명기 대표이사, (유)디알씨총원건설 조성래 대표이사, 뉴삼원종합건설(주) 황인일 대표이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13대 회장 선거는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의 김명기 전 회장 당선 무효 최종 확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3년 4월 김명기 전 회장은 조성래 후

보를 회장 선거에서 1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낙선한 조 후보측이 선거 과정 중에 김 당선인 측의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의 상고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당선 무효 최종 확정 후, 협회 정관에 따라 황인일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전·현 집행부 간의 대결과 특정 후보의 자격 여부다.

지난 2023년 4월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김명기 후보와 조성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1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의 표심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또 제13대 집행부였던 김명기 전 회장과 황인일 회장 직무대행 간의 단일화 여부도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도 김 전 회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해 후보 자격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협회 정관 규정에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는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인 김명기 전 회장의 직무정지 거쳐분 소송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소송에서 거쳐분이 인용되면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 입후보자들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면 23일 제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이 선출된다.

/임채만 기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7주 만에 동반 하락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2.7% 내린 1천746.0원

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하락한 1천660.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한전KPS,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대상

사내 프로그램 통해 정비기술 체계적 인증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인 한전KPS가 최근 '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에서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HRD협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국내 HRD 분야 발전과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평가에서 한전KPS는 독자적인 자격체계이자 경력 교육 검정 쟁인까지 아우르는 사내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원전 정비기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이를 기술력 향상과 전력 설비 안정성 강화로 연결한 점을 인정 받아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전KPS는 실제 전력설비 정비 분야 고유기술의 유지 발전을 위해 기술수준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자격을 부여하는 사내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별 유효기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갱신제

를 도입하는 한편 인사, 급여, 교육훈련 분야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직원의 자발적 학습으로 이어져 현재 1인당 평균 72개의 사내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사업 진출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한전KPS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돼 무척 영광"이라며 "사내자격제도가 산업 내 기술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중진공, 호남권 청년창업사관학교 총동문회 개최

지역 창업기업 상생·협력 다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4일 "최근 호남권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전남·전북·제주) 동문 기업가들이 함께하는 총동문회 '커넥트 데이(Connect Day)'를 목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진공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해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 코칭,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커넥트 데이는 호남권 동문들이 모여 동문 기업 간 상생 협력, ESG 중심 사회공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주·전남·전북·제주 4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창업기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광주청창사 농업회사법인 오엠오 허누림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씨니싸이드업 한원 경 대표(전북), 앵글로 박경진 대표(제주)가 핵

심 사업 성과와 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를 주관한 전남창청사에서 (주)터빈크루 전기은 대표가 'CES로 향한 꿈: 전남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대표성과 혁신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발표를 통해 호남권 기업들은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고 기술 협력·공동 마케팅·O2O 연계 등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동문회는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 자립청년 기부 전달식'도 진행됐다.

동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기부 활동은 호남권 청년층의 자립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ESG 실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커넥트 데이는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호남권 창사 동문들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실질적 교류의 장이 됐다.

/안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률80%)
분양가 : 3.3m²/45만원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 +관리사 +후게실
(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
(기술지도)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